

# KOCHAM 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  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4년 10월 10일(금)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미연준,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
- 2) 오바마, 중간선거 후 백악관·내각 개편 단행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다보스포럼 회원권, 회비 6억7천만원 상회
- 2) 일본, 8월 기계수주 4.7% 증가 (예상보다 상회)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아마존, 뉴욕에 첫 오프라인 매장 개설 계획
- 2) 미 벤처캐피털 238억달러 조성, 금융위기후 최대

## 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### 1) 미연준,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경제 영향

- 지난 8일 미연준은 FOMC(연방공개시장위원회) 회의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표출
  - 전문가는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과 일본 등의 실망스러운 경제성장률 역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
- 반면, FOMC 위원들은 달러화 강세가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동시에 미칠 수도 있다고 평가
  - 달러화 강세로 인해 수입상품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고, 결과적으로 미연준의 목표치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%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예상
- 또한, 달러화 강세가 미연준의 기준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

### 2) 오바마, 중간선거 후 백악관·내각 개편단행

- 지난 8일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4일 중간선거 이후 백악관 참모진과 내각에 대한 일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
  - 일각에선 안보팀과 비서진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
- 이슬람 수니파 반군 ‘이슬람국가’ (IS) 위협 대응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안보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고, 국방 수장을 지냈던 전 장관들이 회고록 등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외교정책을 공개 비난

- 개편을 단행하는 원인으로 안보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
- o 한편, 경호 실패 논란에 휩싸인 백악관 비밀경호국(SS)의 쇄신 가능성도 거론
  - 지난달 19일 흥기를 든 외부인에 의해 백악관 내부 이스트룸까지 깊숙이 뚫린 사건의 여파로 줄리아 피어슨 전 SS 국장이 불명예 퇴진한 것에 이어, 일각에서는 국토안보부 산하 SS 조직을 예전의 재무부 산하로 다시 되돌리자는 주장도 제기

## 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### 1) 다보스포럼 회원권, 회비 6억7천만원 상회

- o 지난 9일 FT는 매년 초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(WEF·일명 다보스포럼)이 회원권을 20% 인상하기로 결정해 기업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보도
  - WEF는 최근 120개 회원사들에게 내년 7월 1일부로 연간 회원권 가격을 기존 50만 스위스프랑에서 60만 스위스프랑(약 6억7,000만원)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전달
- o WEF는 이번 가격 인상이 회원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동안 별도로 부과됐던 추가요금들을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
- o WEF 내 최고 회원 등급인 전략적 파트너가 되면 다보스포럼의 의제를 설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고 회사당 5명까지 포럼 참가가 가능
  - 골드만삭스, JP모건, 시티그룹, 모건 스탠리 등 대표적 금융사들을 비롯, 야후, 유니레버, 네슬레, 화웨이 등 굵직한 다국적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에 포함되어 있음
- o 그러나, 오랫동안 전략적 파트너 등급을 유지해왔던 한 기업 임원은 실제로 포럼에 참석하려면 각종 부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추가, 가격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한 한 바 있음

## 2) 일본, 8월 기계수주 4.7% 증가 (예상보다 상회)

- o 지난 9일 일본 내각부는 지난 8월 핵심 기계수주액이 전달 대비 4.7% 증가했다고 발표
  - 이는 로이터전문가 예상치였던 0.9%를 크게 상회했을 뿐 아니라 7월의 3.5% 증가보다도 개선된 수치
  - 기계수주는 일본의 기계업체 280개사가 주문받은 생산 설비용 기계의 금액을 집계한 통계로 6개월 후의 설비 투자 동향을 알 수 있는 선행지표
- o 이와 관련,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통화정책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까지 이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하면서 동시에 이날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함

## 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### 1) 아마존, 뉴욕에 첫 오프라인 매장 개설 계획

- 지난 9일 WSJ은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창립 이후 첫 오프라인 매장을 뉴욕 시내에 열 계획이라고 보도
  - 연말 쇼핑시즌에 맞춰 매장은 뉴욕 맨해튼 중심가인 웨스트 34번가에 들어설 예정
- 또한 이 매장을 소규모 물류창고로 이용하면서 뉴욕 내 당일 배송을 할 예정
  -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을 직접 찾아가거나 반품·교환도 이 매장에서 가능
-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브랜드를 마케팅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, 당일 배송과 온라인 주문 후 매장 수령은 매우 인기 있는 방식이라고 평가

### 2) 미 벤처캐피털 238억달러 조성, 금융위기후 최대

- 지난 9일 미 전국벤처캐피털협회(NVCA)는 금년 지난 3/4분기까지 벤처캐피털들이 조성한 누계 자금이 237억6,000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
  - 이는 지난해 연간 전체 실적(176억4,000만달러)을 크게 상회,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
- 한편, 3/4분기에 가장 많은 자금을 조성한 펀드는 ‘JP모건 디지털 성장 펀드 II’ (9억9,640만달러)였고 ‘SG 성장 파트너 III’ (5억달러)가 2위를 기록
  - 이들을 포함, 상위 5개 펀드가 3/4분기 자금 조성 실적의 거의 절반을 차지